

# 추신수, 현역 연장 의지... “1~2년 더 땀 자신 있어” 자신감

2013년 텍사스와 7년 계약...올 시즌 성적 아쉬워

“계속 뛰고 싶은 이유, 젊은 선수들 롤모델 되고파”

2020시즌을 마지막으로 텍사스 레인저스와 계약이 만료되는 추신수(38)가 현역 연장 의지를 드러냈다.

추신수는 6일(한국시간) 미국 텍사스 지역지 매거진 모닝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1~2년 더 땀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하지만 내년 비시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봐야 한다. 부모님, 가족들과 이야기를 해봐야 한다”며 “나만의 결정이 아니다. 나는 가족이 있고, 세 아이가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2013년 텍사스와 7년간 1억3000만달러에 계약한 추신수는 2020시즌을 마친 텍사스와 계약이 만료된다.

추신수의 트레이드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지난 1일 트레이드 마감 시한까지 그의 트레이드 소식은 전해지지 않았다.

추신수는 계속 현역 선수로 뛰기를 원하지만, 올 시즌 성적은 다소 아쉬웠다.

올 시즌 29경기에 출전한 추신수는 타율 0.198(101타수 20안타) 4홈런 14타점에 그쳤다. 116차례 타석에 들어서 무려 33개의 삼진

을 당했다. 지난달에는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약 일주일 동안 결장했다.

예전같지 않은 경기력에도 추신수가 현역 연장을 원하는 이유는 또 있다. 젊은 선수들의 롤모델, 리더가 되고 싶다는 것이다.

추신수는 “내가 계속 뛰고 싶은 또 다른 이유는 젊고 재능있는 선수들을 많이 봤기 때문”이라며 “그들을 돕고 싶다. ‘안될 게 뭐가 있어’라는 생각이 들게 만든다”고 말했다.

주로 1번 타자로 나서는 추신수는 지난주 크리스 우드워드 텍사스 감독과 면담을 하면서 유망주 레오디 타바레스에 리드오프 자리를 양보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 아울러 멘토 역할도 자처했다.

우드워드 감독은 “추신수는 팀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 자신은 두 번째로 둔다”며 “타순이 내려가는 것이 신경쓰지 않는다고 하더라. 추신수가 이타적인 사람이라 놀랐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매거진 모닝 뉴스는 “추신수는 꾸준함의 대명사다. 하지만 올해 추신수의 성적은 다소 떨어졌다”며 “2020시즌이 끝난 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불확실하다”고 전했다.



텍사스 레인저스의 추신수가 5일(현지시간) 미 워싱턴주 시애틀의 T모바일 파크 경기장에서 열린 2020 메이저리그(MLB) 시애틀 매리너스와의 경기에서 선발 출전해 2회 안타를 치고 있다.

추신수는 “은퇴하기 전까지 모든 면에서 발전하고 싶고, 건강을 유지하고 싶다. 올 시즌을

부담없이 마치는 것이 가장 큰 목표”라며 “당장 (은퇴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는 이르다. 9월

이 남아있다. 우리는 더욱 강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시스**



## 손흥민, 새 시즌 리허설 끝...14일 스타트

프리시즌 4경기에서 4골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의 손흥민(토트넘)이 2020~2021시즌을 앞두고 리허설을 마쳤다. 프리시즌 평가전 4경기에서 4골을 기록하며 꽤 조의 출발을 예고했다.

손흥민은 6일(한국시간) 영국 왓포드에서 벌어진 왓포드(2부리그)와의 프리시즌 최종 평가전에서 선발 출전해 0-1로 뒤진 후반 35분 페널티킥 골을 터뜨렸다.

이로써 손흥민은 프리시즌 네 경기에서 4골을 터뜨리며 팀에서 가장 많은 골을 기록했다. 이날 토트넘은 1-2로 패해 3승1패로 일정을 마감했다.

손흥민은 1-2로 뒤진 후반 추가시간 토트넘의 빈 골문으로 향하는 공을 건어내기 위해 약 100m를 전력 질주하는 장면을 연출했다.

비록 평가전이지만 골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강한 마음가짐이 엿보였다.

손흥민은 오는 14일 에버턴과의 2020~2021 시즌 리그 1라운드를 통해 새 시즌 일정에 돌입했다.

이후 불가리아 원정으로 로코모티브 플로브디프(불가리아)와 유럽축구연맹(UEFA) 유로파리그를 치르는 등 3주 동안 9경기를 치르는 살인적인 일정을 소화해야 한다.

A매치 일정이 없고, 비시즌 팀 일정에 집중할 점이 다행이다. **뉴시스**

## 기성용, 3941일 만의 상암 복귀전...서울은 무승부

서울, 부산과 1-1로 비겨

11년 만에 프로축구 K리그로 돌아온 기성용이 3941일 만에 FC서울 홈 복귀전을 치렀지만 팀 승리를 이끌진 못했다.

서울은 5일 오후 7시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원큐 K리그1 2020 19라운드 홈 경기에서 부산 아이파크와 1-1로 비겼다.

3연승 후 2경기 무승(1무1패)로 주춤한 서울은 6승3무10패(승점21)로 8위에 자리했다.

부산은 승점 20점(4승8무7패)으로 10위에 머물렀다.

서울은 주세종, 윤영선이 부상에서 회복해 오랜 만에 선발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울산 원정에서 교체로 나와 3935일 만에 K리그 복귀전을 치른 기성용은 이날도 벤치에서 경기를 시작했다.

출발은 서울이 좋았다. 전반 24분 박주영의 패스를 조영욱이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부산 수비수 돈스톤베의 발에 맞고 상대 자책골로 연결됐다. **뉴시스**

전반을 뒤진 채 마친 부산은 후반 16분 김병오를 투입하며 공격을 강화했다.

서울은 후반 18분 고요한이 문전 혼전 상황에서 부산 골키퍼 김호진에 걸려 넘어져 페널티킥을 얻어냈지만, 비디오판독(VAR) 결과 직전 상황에서 박주영의 핸드볼 반칙이 선언돼 없던 일이 됐다.

서울은 이 과정에서 김원식을 불러들이고 기성용을 교체로 내보냈다. 2경기 연속 교체 출전이자, 3941일 만의 서울 홈 복귀전이다.

기성용은 한 차례 날카로운 중거리슛을 시도했지만, 골문을 살짝 벗어났다.

추가 득점 기회를 번번이 놓친 서울은 후반 39분 통한의 동점골을 내뿜었다.

교체로 들어온 부산 김정현이 코너킥 찬스에서 호볼로의 크로스를 헤딩으로 마무리하며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다.

결국 서울은 막판 공세에도 추가골을 넣는데 실패했고, 경기는 1-1 무승부로 마무리됐다. **뉴시스**

## 전남체육회, 청소년스포츠한마당 5개 종목 선정 ‘꽤’

총 사업비 1억4500만원 확보...“침체된 학생들의 체육활동 장이 되길”

전라남도체육회가 청소년 체육 활성화를 위한 청소년스포츠한마당 사업 공모에서 5개 종목이 선정됐다.

전라남도체육회(회장 김재무)는 4일 대한체육회에서 주관하는 2020년도 청소년스포츠한마당 공모 사업에서 축구, 배드민턴, 농구, 탁구, 볼링 총 5개 종목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청소년스포츠한마당은 기존의 학교스포츠클럽대회와 달리 소속에 관계없이 누구나 학생선수들과 일반학생들이 함께 어울려 즐기는 청소년 스포츠 교류의 장이다.

또한 스포츠를 활용한 레크레이션, 학생선수들과 일반학생의 시범경기, 멘토링프로그램 등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는 문화행사를 진행하며 스포츠로 하나되는 학교체육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본 대회는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로 나뉘며 한 종목당 2,900만원의 예산을 대한체육회에서 지원한다.

전라남도체육회는 지난해 사업 공모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선진 체육행정을 통해 올해 신규로 공모한 5개의 시·도 중 가장 많은 5개의 종목에 선정되며 총 11개의 시·도가 선정된 본 사업에서 대전(6개)에 이어 대구와 함께 두 번째로 많은 종목을 개최하게 됐다.

김재무 회장은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청소년 모두가 체육활동 참여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다”며 “방역수칙을 잘 준수해서 이번 청소년스포츠한마당을 통해 청소년들이 침체되었던 체육활동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도록 많은 준비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열린 전남교육감배 학교스포츠클럽 모습

한편, 오는 18일까지 대한체육회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예정인 도체육회는 이후 도교육청과 종목단체 관계자로 구성된 대회공정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의를 개최해 코로나19의 확산 추이를 지켜본 후 종목별로 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정환기자**

## ‘복통 탓 응급실행’ 김광현, 신장 질환 진단

10일짜리 부상자명단 등재  
오늘 등판 취소...“상태 좋아져”

메이저리그(MLB) 데뷔 시즌에 맹활약을 펼치던 김광현(32·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에 제동이 걸렸다. 신장 질환으로 10일짜리 부상자명단(LL)에 오른 탓이다.

메이저리그 공식 홈페이지 MLB닷컴과 세인트루이스 포스트-디스패치 등 외신들의 6일(한국시간) 보도에 따르면 시카고 컵스와의 원정경기를 위해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를 방문한 김광현은 현지시간으로 4일 오전 복통을 호소해 곧바로 시카고의 한 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

병원 검진 결과 신장 경색(renal infarction)이라는 진단을 받은 김광현은 혈액 희석제를 투여받은 뒤 약물 처방을 받았고, 6일 퇴원했다. 김광현은 7일 세인트루이스로 돌아가 치료를 이어갈 예정이다.

당초 7일 컵스와의 원정경기에 선발 등판할 예정이었던 김광현은 10일짜리 부상자명단에 오르면서 등판이 불발됐다. 다코타 허드슨이 7일 컵스전에 선발로 나선다.

시즌을 조기 마감할 정도의 심각한 부상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존 모렐리아 세인트루이스 야구 운영 부문 사장과 마이크 실트 감독은 김광현의 상태가 한층 나아졌다고 전했다. 모렐리아 사장은 “과거에도 김광현이 신장 질환을 겪은 적이 있다. 지난해 12월 김광현과 계약하기 전에 이런



사실을 알았다”고 밝혔다.

이어 “좋은 소식은 김광현의 상태가 나아졌고, 올 시즌 내에 복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라며 “일주일 동안 김광현의 상태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실트 감독은 “김광현은 어제 상당한 통증을 호소했지만, 지금은 어느정도 정상으로 돌아왔다. 어찌만 통증을 느끼지는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광현은 부상자명단에 오르기 전까지 5경기에 등판해 21%이닝을 던지면서 2승 무패 1세이브 평균자책점 0.83의 뛰어난 성적을 거뒀다.

마무리 투수로 올 시즌을 시작한 김광현은 지난달 중순 선발로 보직을 바꾼 뒤 승승장구했다. 그는 9월의 첫 등판이었던 2일 신시내티 레즈전에서 5이닝 3피안타 무실점으로 호투해 시즌 2승째를 따냈다.

현지 매체들은 김광현을 내셔널리그 신인왕 후보로도 거론하고 있다. **뉴시스**

## SK 염경엽 감독, 복귀 5일만에 건강 이상...“기력 쇠한 상태”

염경엽(52) SK 와이번스 감독이 현장 복귀 5일 만에 건강에 이상을 느껴 또다시 지휘봉을 내려갔다.

SK 구단 관계자는 6일 잠실구장에서 벌어지는 두산 베어스와의 경기를 앞두고 “염경엽 감독이 오늘 경기를 이끌지 못한다”며 “기력이 쇠한 상태라 서울 중앙대병원으로 이동해 검사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통상 오후 2시에 시작하는 경기를 앞두고 원정 팀 감독은 낮 12시30분께 취재진과 인터뷰를 한다. 그러나 염 감독은 건강 문제로 병원으로 이동한 탓에 해당 인터뷰에도 참석하지 못했다.

SK 관계자는 “염 감독이 이날 오전부터 몸 상태가 좋지 않았다. 일단 경기장에 나가 상태를 보겠다는 의사를 드러내 경기장에 출근했다”며 “그러나 기력 저하로 경기에 나서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해 병원으로 이동했다. 심각한 상태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날 경기는 박경완 감독대행이 지휘했다. 염 감독은 지난 6월25일 인천 SK행복드림구장에서 벌어진 두산과의 더블헤더 1차전에서 경기 도중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후 염 감독은 두 달 넘게 휴식을 취했다. 이 기간 박 감독대행이 선수단을 이끌었다.

건강을 어느정도 회복한 염 감독은 1일 LG 트윈스전에서 68일 만에 복귀했다.

하지만 복귀 이후 5일 만에 다시 건강에 이상을 느꼈다. SK는 염 감독 복귀 이후에도 연패를 끊지 못했다. 전날 두산전에서도 1-5로 패배하면서 8연패의 수렁에 빠졌다.

심각한 상태는 아니지만, 염 감독의 복귀 시기는 미정이다. **뉴시스**